



12면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윤 2월 10일) 제32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지역 조선업 구직거점 문 열다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

일자리매칭·직업훈련
취업정착금 지원 등 제공

조선업 등 주력산업
취업연계 700명 목표

전북도가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고 구직·구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센터를 개소했다.

전북도는 30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전현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현대중공업 김동일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를 개소하고 올 한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군산지역이 지난 2022년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라 지원종단 이후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위기 대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된 것이다. 향후 도약센터는 조선업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채용

연계를 위한 일자리매칭제이와 취업 캠프 지원,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입직자 취업정착금(100만원), △숙련자 기술수당(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업 구직자 발굴과 응접·도장파정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도 반기별로 추진한다.

또한, 센터는 조선업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일자리 연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플러스 사업을 통해 조선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내일채움공제지원(1년 600만원), 255세~만 49세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일자리도약장려금(1년간, 월 100만원)도 추가 지원하며, 이와 함께 전북도 주력산업인 전기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분야 취업연계를 위한 직무교육, 취업캠프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약센터가 전북 조선업 도약을 위한 구직거점기관으로서 전북 조선업의 미래와 조선업에 일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위해 든든한 벗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5월에는 조선업 기업체 일자리매칭제이를 통해 구직자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450-131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30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전현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현대중공업 김동일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는 등 구직·구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정식 개관

인력양성·전문성 제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북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정식 개관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30일 군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지역 대학교 총장, 기타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부지 9,98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시비 42억)을 들여 3년 만에 완공됐다.

혁신타운은 기업입주동과 연구숙박동 총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카페·구내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서 입주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입주동 2층과 4층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32개소가 입주해 마쳤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시제품제작실, 편의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한, 3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도서관은 도민에게 개방해 사회적경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다.

4층에는 전북도의 특화된 숙박시설을 갖춰 사회적경제관련 단체·기관들이 워크숍,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 후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혁신타운은 군산대 등 대학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으로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혁신타운이 전북의 사회적경제를 넘어 전북 경제를 이끄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4·5 재선거 사전투표 오늘부터 이틀간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

전주를 국회의원과 나선거구 군산시의원을 뽑는 4·5 재선거 사전투표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도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30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14곳(전주시 완산구 9곳, 군산시 5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사전투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2일차인 4월 1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4월 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토·일요일 신문 쉽다.

도내 공직자 평균재산 7억5355만원

전북도 공직자윤리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규모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5,355만원이며, 전년도 신고 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88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인 23명(11.3%),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5명(7.4%)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64%), 재산 감소자는 74명(36%)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요청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